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78

2017. 5. 14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
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
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서 정하신 바라 _ 로마서 13:1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더 바이블
- 3 선교 이야기
- 4 사역팀 봄나들이
- 5 우리들학교에 다녀와서
- 6 청빙위원회 특집
- 7 목회칼럼
- 8 아기나들이

교회 일정

- | | |
|----------|-------------|
| 5/14(주일) | 교사주일 |
| 5/16(화) | 늘푸른대학 봄 나들이 |
| 5/21(주일) | 청년주일 |
| 6/4(주일) | 성찬주일 |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야, 저기 무지개가 보인다”- 무지개잔치 중에 환한 미소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에 대한 모든 것

지난 5월 5일, 주님의교회가 자리한 정신학교 교정에서 무지개잔치가 열렸다. 그동안 하늘을 온통 점령했던 미세먼지로 맑아도 맑지 않은 하늘이 모처럼 제 빛을 되찾은 가운데, 이 땅의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이 모처럼 마음껏 뛰고, 놀고, 먹으며 즐겼다.

무지개는 대개 소나기가 내린 날 오전이나 오후, 해의 반대쪽에 생긴다. 소나기가 내린 여름날 저녁 동쪽에 뜨는 경우가 많다. 덥고 습한 여름날 다량으로 발생한 습기가 공중에 모여 적란운을 형성해 소나기를 내리게 하고, 그 물방울들에 서쪽으로 지던 햇빛이 반사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무지개 ‘rainbow’는 ‘비온 후 활과 같은 모양으로 떠오른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말 ‘무지개’의 어원은 무엇일까? 국어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고어의 ‘물(水)’과 위가 동그렇게 된 작은 문 ‘지개(戶)’가 합쳐져서 ‘물지개’가 되었던 것이 15세기에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브지개’가 되었고, 이것이 17세기에 원순모음화를 일으켜 ‘무지개’로 바뀌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 ‘에’와 ‘애’의 중화 현상으로 ‘무지개’가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무지개가 물방울에 반사된 햇빛이라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뉴턴은 무지개가 태양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무지개를 음악의 7음계에 맞추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으로 나누었다. 그 이전 유럽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다섯 가지라고 생각했다.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보았고, 한국에서는 무지개 색을 오방색이라고 생각했다. 현대 광학기술로 무지개를 미세하게 나누면 207색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작금, 이 사회를 오래 덮었던 혼란의 먹구름이 물러나고 모처럼 무지개빛 맑은 날이 밝았다. 함즐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4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3. 얀 후스

종교개혁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루터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루터는 “우리 모두는 후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후스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았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면 얀 후스(Jan Hus 1371-1415)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위클리프의 영향

얀 후스가 태어날 무렵 체코의 프라하와 영국의 런던은 정치적 사상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다. 1382년 이래로 체코의 많은 대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베들레헴 교회 내부

영국의 종교개혁가 위클리프의 영향이 체코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다. 프라하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서도 위클리프의 사상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후스는 이들에게서 인문학과 신학을 배워 가톨릭 사제가 되었다. 그는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되어 10년 동안 3,000번이 넘는 설교를 하였는데, 배우지 못한 대중들도 쉽게 이해하고 그들이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체코어)를 사용하여 설교하였다. 또, 체코인들의 정서에 잘 맞는 찬송 가사를 지어 대중적으로 보급하였다.

후스의 교회개혁

후스는 교회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곳이 아니라 베풀고 돌보는 곳임을 강조했고, 비

성경적인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다. 또, 후스의 독특한 점으로 부각된 것은 미사 때 신자에게 잔을 베푸는 의식을 부활시킨 것이다. 가톨릭은 과거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피’를 조금이라도 흘릴지 모른다는 이유로 잔을 사제들에게만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후스파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이종배찬(Utraquism)을 주장했다.

후스 정신의 계승

이처럼 프라하 개혁의 중심으로 존경받는 민족지도자였던 후스는 가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모라비아 형제단’을 통해 계속해서 계승되었고, 모라비아 형제단은 세계선교에 큰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도 중대한



얀 후스 동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후스의 순교 500주년을 맞아 프라하 광장에 세워진 동상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두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주영 전도사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더 바이블 (The Bible)

2.성경의 구성과 배열에 대한 차이점과 그 의미

성경은 고대 번역본인 칠십인역(LXX)과 맛소라성경(MT)으로 나눌 수 있다. 칠십인역과 맛소라성경은 그 구성과 배열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갖는다. 우선 칠십인역은 헬라어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개역개정 성경이 그 배열 순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반면 맛소라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킨다. 칠십인역은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총 4가지 구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맛소라역은 모세오경,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3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는 칠십인역과 맛소라의 구성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도표에서 살펴보면 칠십인역과 맛소라를 비교해 보면 그 구성에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맛소라 성경은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예언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룯기, 예레미야애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역대기상하를 성문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칠십인역을 살펴보면 이 성경이 역

사적 서술을 중심으로 그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즉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원칙인 율법과 규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서는 그 규례들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형태라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칠십인역에서 성문서는 역사서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탄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언서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심판과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은 구약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서 당연히 신약 속에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하지만 맛소라역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정들을 보여주고 예언서를 통해서 이러한 삶의 원칙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자들의 심판과 참된 회복에 대해서 깨닫도록 한다. 그리고 성문서는 하나님을 경

외하는 참된 지혜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슬픔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래서 맛소라 성경은 역대기서를 맨 마지막에 위치시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가진 이상적인 회복을 보도록 한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가슴 벅찬 회복과 희망이야기를 기대하도록 한다.

김근주 교수는 “유대인들의 성경 구조는 그 배열과 의미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인 구도를 갖는다.”라고 말한다.¹⁾ 이러한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이 더욱 올바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다면 성경은 어떤 시대적 관점과 방법을 활용해서 읽어야 하는지 다음호에 살펴보자. 이은석 목사

1) 김근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서울:성서유니온, 2017), 90쪽.

〈더 바이블(The Bible)〉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읽어, 말씀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성경의 구성	칠십인역(LXX)	맛소라역(MT)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 욥기, 잠언, 룯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애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역대기상하

사역팀

경주지역 원전시설을 견학하다

2011년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작년 극장가에서 관심이 많았던 원전사고 영화 판도라,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원전 폐지론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국내 원전의 안전성, 필요성 등에 대해 의구심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수요를 30% 이상을 담당하는 원전이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환경사역부에서 주관하는 원전시설 견학계획을 접하고 참가 신청을 하였다. 4월 18일(화) 6시 반에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월성원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을 견학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환경사역부에서는 방문시설에 대한 일정계획만 소개



하고 참가자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원전시설의 안전성, 필요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직접 시설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라고 하여 더욱 불안감이 커져 갔다.

점심을 위해 찾은 식당은 전통적인 한옥의 기와집 이었는데 작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부서진 벽, 기와 등의 흔적을 보니 이래도 원전은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커져 갔다. 식사 후에 한수원 본사를 들러서 원자력발전소 종

류, 특성 및 국외 현황 등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홍보관을 돌아보면서 궁금증과 불안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어른 팔뚝보다 큰 철근들로 뻗뻗하게 시공한 1.2m 두께의 원자로 격납건물은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사고에도 방사선 누출을 차단하고, 다중방어 안전시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검증된 우리의 안전한 노형, 발전원가가 50원/kw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원전 정보 등을 접하면서 원전

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안심을 가졌다.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월성원전의 주요 시설들과, 지하 130m 아래 20층 아파트 6개 동 크기와 축구장보다 넓은 시설에 안전하게 관리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을 하나하나 직접보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불안감, 의구심에 사라지고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원전 필요성이 피부로 느껴졌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참여한 교수들과 견학 소감을 서로 나누면서 모든 분이 저와 같은 인상을 받았고, 또한 UAE에 수출한 우리의 원전4기가 금년부터 차례로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니 우리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이 피곤함을 잊게 했다. 송희 집사

선교이야기 5

현대선교의 장을 열었던 네 사람과 세 시대

윌리엄 캐리

영국의 20대 청년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한 대위임령(마28:18-20)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어느 목사들의 모임에서 대위임령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는 도전을 주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구원하기로 뜻하시면 우리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스스로 하실 것이라며 모였던 사람들이 해외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실망한 윌리엄 캐리는 1792년에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소책자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캐리는 선교의 수단으로 후원 선교회의 조직을 강조하였고 이 책에 도전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선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을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미국 등으로 선교회 조직이 점차 확산되었고 미국에서는 다섯 명의 대학생이 캐리의 소책자를 읽고 도전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건초더미 기도회), 이 모임은 후에 미국 회중교회의 해외선교부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대학생 선교운동의 모범과 선구가 되었다.

캐리의 인도 선교를 시발점으로 한

첫 번째 선교시대에는 주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해안선 지역에 선교가 집중되었기에 이시대를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부른다. 해안선 지역에서 전파된 복음은 원활하게 내륙지방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윌리엄 캐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며 선교회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선교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허드슨 테일러

해안선 지역에서의 복음이 내륙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을 본 20대의 허드슨 테일러는 1865년 중국 내륙지방으로 사람을 보내는 새로운 후원 조직(중국 내지 선교회)을 만들고 본인은 선교를 위해 중국 내지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젊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비난을 감수하며 이 선교회는 수 많은 선교사들을 중국 내륙으로 파송하였다. 그들이 갔던 내륙지방은 다양한 언어, 풍토병, 이질적인 문화 등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해야만 했기에 이들에게는 Faith Mission이 필요하였고 해안선 선교시대 보다 더 많은 후원 선교회가 필요하였다.

수단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내지 선

교회, 아프리카 중심부 선교회, 미전도 지역 선교회, 미개척지 선교 연맹 등 40개 이상의 새로운 선교기관이 Faith Mission을 기반으로 생겨났으며 대학에서는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 10만명의 대학생들이 헌신하였는데 이들 중 2만명이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나머지 8만명은 선교운동에 헌신하였다. 이 시대를 **‘내지 선교 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타운센드와 맥가브란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 성경과 스페인어로 사역을 하던 타운센드에게 한 인디언이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우리말은 할 줄 모릅니까?”라고 질문에 고민하던 그는 동일한 지역이라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있다면 각각 그들의 언어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1934년에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세워 성경번역선교에 헌신하였다.

한편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맥가브란은 언어적 장벽보다 인도의 사회적, 수직적 계층 간 장벽의 심각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계층 간에 복

음의 확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각각의 계층에 선교적 돌파가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언어, 계층, 문화 등 비지리적 범주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과 종족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인해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던 20년 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며 **‘종족 선교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해안선 선교 시대를 연 윌리엄 캐리와 내지 선교 시대를 연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종족 선교 시대를 연 캐머런 타운센드와 도널드 맥가브란, 이들 4 사람은 위대한 헌신을 통해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며 현대 선교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참고: 퍼스펙티브스, “네 사람, 세 시대, 두 전환기: 현대선교”, 랄프 윈터)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본과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사역팀

다른 모습으로 함께한 나들이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도깨비’의 대사입니다. 이별을 앞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었고, 슬며시 전하는 사랑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긴 여운을 주고 큰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사랑의 찬란함을 말해주는 때문입니다.

4월 29일 날이 좋은 토요일에 주님의교회 농아인공동체인 에바다부와 지체장애인 공동체인 잇딤나무와 그들을 사랑하는 봉사자들이 함께 일산호수공원으로 봄 야외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숨씨를 찬양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송비율 전도사

겨자씨

안나겨자씨 나들이



안나겨자씨가 5월 10일 춘천 제이드가든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봄의 색으로 갈맞춤을 하신 어르신들의 복장에서 나들이를 나서는 설레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숨쉬기조차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는 전날의 비와 함께 사라져, 산내음과 꽃내음을 마음껏 들여 마실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의 표정과 끊이지 않는 대화는 마치 소녀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였다.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 산림욕을 한 뒤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는 강원도의 별미로 이루어

졌는데, 고량진미(膏粱珍味)라고 하였던가, 살찐 닭과 좋은 메밀 식사는 이날 나들이의 하이라이트임에 분명했다. 티(tea) 타임은 짧은 여행의 피날레로 장식되었다. 입맛에 쓴 ‘아메리카노’일진데 모두들 그것으로 드시겠다 하며 ‘아메리카노에 설탕을 넣으면 촌스럽다.’ 하는 도시녀들의 나들이는 즐겁게 막을 내렸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주님의교회에는 주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두 개의 안나겨자씨가 4교구에 속해 있다.)

함줄함줄

여선교회

제4여선교회 봄나들이



꽃들의 화려한 축제가 끝날 무렵 연녹색의 잎사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4월 26일 연한 녹색으로 물든 나뭇가지 사이로 파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남산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교회에서 만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오랜 친구들이 삼삼오오, 소곤소곤, 마치 소녀가 된 것처럼. 각자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 때론 부딪힘도 있지만 믿음생활과 봉사를 함께 하며 고운 정, 미운 정 들어가나 보다.

돌아서면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니 이젠 조금씩 아픈 곳도 나타나지만

그 아픔까지도 나누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주님께 한없이 감사한다. 남은 시간 또한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진다. 진초록의 녹음이 내릴 때쯤 4여선교회 모든 친구에게 다시 나들이를 한번 가져고 해야겠다.

4여선교회 회원은 56년~59년 성도모임으로 수서복지관 반찬봉사와 늘푸른대학 식당봉사와 통일 선교부 하나원봉사를 하고 있다. 부디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소망해 본다.

오성자 집사

사역팀

충주호에 다녀와서



살랑거리며 코끝을 스치는 바람과 더없이 아름다운 연초록의 물결에 축복을 받은 주차안내부 봄나들이 4월 22일(토) 43명의 봉사자들이 충주호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바람과 맑고 고운 하늘에 조각구름 걸려있고 시야가 탁트인 날 이른 아침 반가운 님들과 정답게 눈맞춤 나누며 충주호로 떠났습니다. 수줍은 듯~ 붉게 물든 길가 영산홍이 마음껏 향기를 내뿜고 인사를 합니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충주호 풍경에 취해 유람선 선상에서 짧은 예배를 드리고 여유로움에 빠

져보았습니다. 팝콘 터지듯 하얀 속살 들어내며 자태를 뽐내는 남한강의 물결과 함께하는 나들이길 저 멀리 월악산 줄기 줄기마다 보이는 산들의 모습들이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그곳. 각기 다른 색으로 곱게 물들고 살랑살랑 바람결에 춤을 춥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봄날의 충주호 그리고 탄금대의 모습들, 반가운 님들과 고소한 향기 풍기며 알콩달콩 재미있는 추억을 가득 담아 왔습니다.

신형섭 집사

무지개잔치

무지개 속 희망 이야기



아이들이 밝게 웃음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나라를 본다. 뛰노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라고 있다. 다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미래에도 이처럼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해 하는 날들을 희망한다. 자신의 선택으로 남편의 어머니 곁에 남아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루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방인에서 인생

역전을 통해 하나님의 가문에 선택되는 영광을 누리는 엄청난 드라마 속 한 장면을 지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영광의 감격을 쓰고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다.

허리로 5개의 홀라후프를 한꺼번에 돌리는 아이 만큼이나 삶의 무게들을 저렇게 아름답고, 재미있게 만들어 가는 모두가 되길 기도드린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님의교회에 감사드린다.

원용한 전도사(하남외국인비전센터)

사역팀

어버이날, 남천경로당에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의 날들이 비온 후 좀 맑아지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남천경로당에서 5월10일(화)에 80여분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호산나 무용팀의 공연과 특별이 준비된 점심 식사와 정성스런 선물을 나누며 어버이날 잔치를 하였다. 정창화 목사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즐거움이 늘 변함없는 마음들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렸다. (사)섬김과 나눔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남천경로당에서 8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함글함글

사역팀

우리들학교에 다녀와서

우리들학교(윤동주 교장, 서울 관악구)는 2010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이다. 교사 34명(상근 4명), 학생 38명이 한국어 과정, 초.중.고 검정고시, 대입준비 과정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직접 탈북한 청소년과 탈북 여성이 중국인과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26세로 이들 중 많은 학생들이 나이 때문에 인가받은 대안학교(24세까지 재학 가능)에는 갈 수가 없다. 최근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통일선교위원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과 4월 첫 금요일 점심 식사 봉사를 다녀왔다. 음식을 준비하고 생일 축하와 점심을 같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일파티가 한국에 와서 처음 하는 매우 낯선 풍경이었다. 그렇지만 케익에 촛불을 밝히고, 다함께 생일 축하를 노래하고, 촛불을 끄며 모두 즐거운 표정이었다. 생일이라 소고기 미역국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우리 또한 이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느낀 시간이었다.

사역팀

호스피스 춘계세미나를 다녀와서



한국 호스피스협회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봉사자들의 정서함양과 또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봉사자의 자세로 또 변화된 정책으로 헌신할 것인지를 교육하고 위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7년 주제는 비암성질환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세미나로 열렸다. 4월22일 토요일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호스피스팀 23명의 봉사자들이 참석을 하였다. 해마다 봄에 열리는 춘계세미나는 매년 주님의교회

에서 개최했지만 여러 형편상 이제는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가을 춘계세미나와 함께 열리고 있다. 주말이고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주부인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웠지만,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 그냥 돌아오기가 서운해 조금 일찍 세미나장을 나와 청남대 꽃 축제까지 참여하는 재충전의 귀한 시간을 가졌다.

소봉순 피택권사



우리들학교는 공식적인 학력을 인정하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 학교와는 달리 초, 중, 고교 검정고시를 목표로 수업을 한다.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에는 일반 학교에 진학하여 남한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 이 날에도 경남 거제도에서 어머니와 딸이 입학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같이 식사를 하였다.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장학금도 주어지지 않지만 수업료도 전혀 받지 않는다. 물론 교사들도 거의가 자원 봉사자들이

다. 만약 이 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나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가를 받지 않는다. 비인가 학교이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어 과정을 맡을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한다.

앞으로 통일선교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금요일에 생일 축하파티와 점심을 함께하기로 했다. 하루라도 교사들의 점심 준비 손길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려고 한다. 매월 점심봉사와 지원에 동참하실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다.

이병직 집사

청빙위원회 특집기사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2가지 ④

지난 호에 이어, 10년 만에 맞는 담임목사 청빙의 과정을 맞아, 청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청빙의 과정 자체가 주님의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교회의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교인 각각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해는 교회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주님의교회가 가졌던 창립정신을 새로 맞을 10년에 담기 위해서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표어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앞서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이번 청빙의 과정 자체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내용은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뉴스앤조이, 2013)과 관련 자료를 발췌, 요약했습니다. **함줄함줄**

목차

- ①청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 ②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가요?
- ③한국 교회의 청빙 방식은 어떤 게 있나요?
- ④청빙의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⑤청빙 과정을 위해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 ⑥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돌이켜 보는 까닭은요?
- ⑦미션스터디란 무엇인가요?
- ⑧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을까요?
- ⑨청빙에 대해 교회법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⑩청빙 과정에서 교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 ⑪청빙 과정에서 가려야 할 것과 밝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⑫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5. 청빙 과정을 위해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목회자 청빙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청빙과정 자체가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 청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적인 훈련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영성훈련 계획을 세우

고 진행해야 한다.

청빙과정에서의 영성훈련은 단순한 기도모임이나 릴레이 기도 형태의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 안에서 교인들의 영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내면적인 성찰, 그리고 전 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준비를 통해 모든 교인의 영성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자상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6. 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돌이켜 보는 까닭은요?

교회의 어제는 공동체의 어떤 신념과 철학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그 신념과 철학은 오늘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을 미래에서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교회 평가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람직한 교회 평가 설문지는 교인의 신앙이력과 생활, 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담도록 한다. 개인의 연령과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되었고, 교회 활동, 개인 영성 생활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과 교회의 5대 사명인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과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을 한다. 그리고 전임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고, 교회 집행 기관(운영위원회, 당회, 제직회)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을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신임 목회자 청빙 방식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을 한다. 설문결과를 분석해서 전체 교인과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7. 미션스터디란 무엇인가요?

청빙 과정에서 전체 교인이 참여하는 ‘미션 스터디’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교회 안의 작은 소그룹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그룹별로 이 과정을 통해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소그룹 리더들은 그 이야기를 종합

해서 청빙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당회,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전반적인 교회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목회자는 누구이고, 신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과 원하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정립하는 기회가 된다. 이 과정에 필요한 독서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8. 청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을까요?

청빙과정의 마지막에 제직회와 공동의회 등 교인총회에서 지원자 중 최종 일인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인총회가 목회자 청빙 전체에 관여할 수는 없으므로 청빙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공모형 방식의 목회자 청빙의 거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청빙을 진행함에 있어 위에서 말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안을 핵심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첫째는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절차와 심사 기준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는 신뢰받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당회, 기획위원회)가 청빙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청빙위원회의 구성원은 전체 교인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세대 또는 특정 구성원 중심으로 결정된 목회자 청빙은 나중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 연령별, 직군별, 사역위원회 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내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어 대표성과 역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교우와 함께,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젊은 시선도 포함되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 바람직한 교회의 미래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우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청빙에 대해 교회법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빙에 대한 교회법과 규정과 관련해서는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주님의교회 정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편 제28조에는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임목사에 대해서는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담임목사에 대해서는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헌법상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정관>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의 청빙에 대한 총괄적 규정은 따로 없으며, 제8장 보칙 제29조에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밖에 개별 규정에 청빙에 대한 내용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장 제6조에 당회는 교역자 청빙의 노회 청원을 하게 되어 있고, 제4장 제17조에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 투표에 대해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인사관리규정> 제8장에 담임목사의 청빙과 퇴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38조에는 “①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의 구성은 당회에서 정하고 그 청빙기준, 활동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청빙위원회에서 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퇴임하는 담임목사는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 7면에 계속

목회칼럼

소통하는 교회 질서 문화를 생각하며

어느 덧 자주 접하고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생각다.”이다. 국립국어원은 이 단어를 표준어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샘은 이 표현에 대해서 “(속되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모르는 체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 즉, 그 행동의 의미 측면에서 안면 몰수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교회 모임 중에서 한 성도는 친하게 지내는 성도로부터 한 순간 안면 몰수를 당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건넌 인사에서 안면 몰수를 당해서 수치와 급기

야 속병까지 감당해야만 했다고 말한다. 이 “생각”은 보통 소통해야 함에도 일부러 피하고 대화하지 않음으로 “그가 나를 생각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 문제는 표현이 아니다. “생각는 것”이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표현이 서로의 불통과 무관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표현은 결국 가정과 사회의 병을 양산하기에 이른다.

서로의 인격에 대한 신뢰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를 강조하고 있고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음행과 이단,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역시 타협과 수용을 강조하며

사랑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문제에 대해서 안면 몰수하여 무관심으로 대처하기보다 인격에 대한 사랑과 소통으로 교회 질서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은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한국교회는 100주년을 이미 넘겼다. 한국교회는 어찌되었든 부흥을 거듭하며 성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인격과 존중도 함께 성장했어야 했지만 꼭 그렇게 성장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는 소통의 부재는 교회에서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소위 남자들의 세계 속에는 군대문화라는 것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연차대로 나이순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당함을 인식시키고 강요하며 받들 것을 말한다. 때론 설득도 강요도 필요하겠지만 교회는 다름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 주신 그 숭고한 인격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인격을 강조하며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꿈꾼다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와 협력, 그리고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질서 문화를 이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은석 목사

〉6면에서

한편 주님의교회 〈당회운영규정〉 제13조에는 “①당회는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나 부설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상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거나 부설기관을 설치할 때는 그 설립 취지와 의미, 담당업무의 범위, 활동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특정 목적을 위해서 당회에서 위임 받은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 결과를 당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청빙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10조에는 “각 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관 직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약간의 비당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회원이 아니라하더라도 청빙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10. 청빙 과정에서 교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청빙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회자 청빙’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청빙이 어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

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비록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이 인간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모아 가장 적절한 담임목사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교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우리 교회에 적절한 목회자인지 확인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그 결과를 교인들은 모두 환영하고 기뻐하며 수용할 것이다.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교인들은 청빙의 최종 과정에서 투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역할은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믿고, 그 결정에 순복하고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교인들의 역할이 최종 결정에 책임지는 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교인의 역할이 순조롭게 나타나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청빙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청빙 과정이 투명하도록 청빙위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청빙위원들은 모든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작부터 제도적 장치를 모든 교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인들이 이와 같이 청빙 과정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책임지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11. 청빙 과정에서 가려야 할 것과 밝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청빙위원회는 청빙 공고부터 최종 1인 선출에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교인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청빙에 지원한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기밀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원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반드시 제한된 청빙위원회에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빙위원회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몇 명이 지원했고, 그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해 가는지 매 단계마다, 또는 일정 시점마다 투명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찾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목회자란 있을 수 없다. 그냥 좋은 목회자를 모시고 싶다는 교인들의 평범하고

도 두루뭉술한 바람은 실제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교회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청빙하는 목사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적확하게 명시될수록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모실 확률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청빙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투명성,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은 민주적 청빙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나머지 마무리 과정이 같든이냐 분열이 아닌, 화합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출된 최종 1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당회는, 최종 후보를 선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점검이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당회와 교회 전체와 충분하고 납득할 만큼의 투명한 소통이 이뤄졌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런 후에, 최종 1인을 교회에 공고하고 교인총회(또는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교인 총회소집이 교회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모든 교인이 승복하게 될 것이다.

함글함글

아기나들이



김서울 아기

2017년 2월 22일생

1.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살기를
2.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3.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아빠 김중철 / 엄마 정효선, 2017년 4월 23일 3부 예배



명규호 아기

2017년 1월 17일생

1.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이가 되기를
2.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기를
3. 성실한 아이가 되기를

아빠 명재찬 / 엄마 하유리, 2017년 4월 23일 2부 예배



이우진 아기

2016년 12월 26일생

1.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유롭게 온유하게 성장하여 영, 혼, 육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2. 꿈을 갖고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3.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아빠 이종원 / 엄마 김현경, 2017년 4월 23일 3부 예배



최강우 아기

2017년 2월 1일생

1.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기를
2.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3.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기를

아빠 최영진 / 엄마 김화영, 2017년 4월 23일 2부 예배

교회단신

2017년 상반기 유아세례식

지난 4월 30일에 2017년 상반기 유아세례예식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유아세례를 받는 아기는 총 27명이었다.

함줄함울

유아세례자 : 권예담, 김나현, 김나현, 김민서, 김아인, 김유나, 김윤슬, 김이안, 김제인, 김지안, 민설아, 서연호, 유지원, 이도연, 이수아, 이수호, 이우진, 이은섭, 이주안, 이주영, 이주원, 이채원, 이한나, 최윤하, 최주아, 한채아, 한채울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제4회 통일선교학교

“하나님의 나라 – 통일을 살라!” II

(Live in Unification for the kingdom of God!)

일시 : 6/1(목)~6/22(목) 매주 목요일 저녁 7:30~9:30

장소 : 주님의교회 소예배실(1층)

회비 : 10,000원(5/21부터 2주간 로비에서 접수)

내용

1일차. 6/01(목) 이론 1 : 통일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비전과 전략

2일차. 6/08(목) 이론 2 :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바라보기

3일차. 6/15(목) 실천 1 : 국내에서 통일을 사는 삶 – 탈북청소년대안학교

4일차. 6/22(목) 실천 2 : 해외에서 통일을 사는 삶 – 탈북민 구출사업

강사	소개
조요셉 박사	예수전도단 북한선교연구원장 / 경찰대 교수(전) 물댄동산교회 담임
오성훈 교수	PN4N 대표 / 주빌리 사무총장(대) / 숭실대 교수
윤동주 교장	탈북청소년대안 우리들학교 교장
이빌립 목사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 열방샘교회 담임

주님의교회 남선교회 발전을 위한 친교모임 안내

1부 | 미술과 함께 각종 퀴즈게임

2부 | 뷔페 식사

3부 | 주님의교회 30년을 바라보면서 토론회

★ 교회 내에서 남선교회 활동을 원하시는 모든 분 환영합니다 ★

▶ 일시 | 2017.5.20(토) 오전 10시

▶ 장소 | 교회 1층 3집회실

주님의교회 연합남선교회 ▶ 문의 : 최재규 안수집사 / 010-7760-0234

☎ 알립니다

1. 사랑나무 수련회

일시 : 5/13(토)~14(주일)

문의 : 탁준한 안수집사(010.5389.2594)

2. 제16기 결혼예비학교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결혼한 신혼부부

일정 : 5/28, 6/4, 11 매주일 오후 4:00~8:00

회비 : 커플당 8만원 / 신청: 교역자실(4층)

문의 : 허준 목사(010.5450.5308)

3. 예배 영어 통역봉사 모집:

예배의 통역을 통해 특별한 은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최영재 집사(010.4921.7844)

4. 5월 권사 월례회

일시 : 5월 17일(수) 오전 10:30 소예배실(1층)

문의 : 최정숙 권사(010.3470.0806)